

# 사찰 벽에 수놓은 깨달음의 열망



국내에서 첫 공개되는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비천도.

‘불국토, 그 깨달음의 염원 -사찰벽화 특별전’ 국립대구박물관 8월 13일까지



부석사 대웅전 벽화의 모사도.

## 사찰벽화의 세계

절에서 예배의 대상이 되는 성보는 불상을 비롯해 탱화, 괘불 등 다양하다. 그 가운데서도 쉽게 보게 되면서도 잘 관심이 가지 않았던 벽화를 들여다보자.

살과 죽음을 사찰과 함께 하는 벽화. 다른 성보보다도 사찰 건물의 부침(浮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벽화의 세계가 국립대구박물관(관장 김정완)에서 펼쳐진다.

국립대구박물관(053-768-6052)은 ‘불국토, 그 깨달음의 염원-사찰벽화 특별전’을 6월 3일-8월 13일 박물관 기획전실에서 개최한다. 국내에 첫선을 보이는 보물 제1315호 무위사 극락전 벽화를 비롯해 삼국시대에서 조선 후기까지 불국토를 형상화한 사찰벽화 8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별전은 ‘불국토 깨달음의 염원-사찰벽화’를 찾아서 ‘삼국시대의 불교벽화’, ‘통일신라시대의 불교벽화’, ‘고려시대의 사찰벽화’, ‘조선 전기의 사찰벽화’, ‘조선 후기의 사찰 벽화’ ‘사찰벽화의 원류-돈황석굴’ 등으로 꾸며졌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삼국시대 서복사지 벽화부터 중국 돈황석굴 벽화에 이르기까지 극락으로 장엄된 사찰 벽화의 원성미를 직접 몸으로 느껴볼 수 있다.

6월 17-8월 13일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후3시에는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문화예술 전문 안내인 도슨트에 의한 전시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대별 흐름에 따라 한국의 벽화는 어떻게 바뀌고 발전했는지 전시에 나온 벽화의 세계를 찾아가자.

### ▲ 삼국시대

백제 부여 부소산 서복사지 벽화를 통해 사찰 벽화의 기원을 살펴본다. 삼국시대 코너에서는 고구려 감신총(鞍神塚)과 쌍영총(雙靈塚) 벽화 모사도와 능산리 벽화 고분 비운연화도(飛雲蓮花圖) 등이 같이 전시된다. 사찰벽화와 고분 벽화 속의 불교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 ▲ 통일신라시대

익산 미륵사지로 대표되는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선보인다.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설화로 유명한 익산 미륵사지는 한국 최대 규모였다고 전해온다. 그 동안 미륵사지 석탑으로 유명했던 미륵사지의 벽화를 통해 통일신라를 엿본다.

### ▲ 고려시대

예산 수덕사 대웅전 벽화 모사도가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벽화 모사의 대가 임천 학예관이 1937년 작업한 수덕사 대웅전 벽화 모사도는 수생화 야생화 비천도 극락조 등 15점이다. 영주 부석사 조사당의 사천왕 벽화 모사도와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출토 금동방형향합 등도 전시된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의 수생화도 모사도.

### ■ 사찰벽화의 기원

사찰벽화는 언제부터 그려지기 시작했을까.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는 급고독장자가 부처님께 보시한 기원정사에서 최초의 불교그림이자 불교벽화가 그려졌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경전에 따르면 “급고독장자가 동산을 보시한 후 부처님의 허락을 받아 장엄을 시작했다. 부처님께 여쭙어 문의 양쪽에는 집장약차(執杖藥叉)를 그리고 옆의 한 면에 대신통변(大神通變)을 그리며 또 한 면에는 오위생사(五藏生死)의 수레바퀴를 그리고 첩하여는 분생사(本生事)를 그리며 문 앞에는 지만아자를 그리고, 강당에는 늙은 비구가 법요(法要)를 선양하

### 삼국시대~조선후기까지 불국토 형상화한 사찰벽화 80여점 전시실 장엄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아미타삼존도.

### ▲ 조선 전기

조선 전시 사찰 벽화의 원형이 되고 있는 수종사 금동불감 후면불화가 첫 선을 보인다. 안동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후불벽화의 조형이 됐던 보물 제971호 묘법연화경 변상도와 보물 제793·1145호 법화경 권수판화 변상도를 만날 수 있다.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아미타삼존도, 아미타래영도, 설법도 등의 모사도도 전시된다.

### ▲ 조선 후기

보물 제1315호인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백의관음도와 비천도 아미타래영도 등이 처음 대중 앞에 나선다. 무위사 벽화보존각에 보관된 이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 미공개 벽화들이다. 김해 은하사 시왕전 나한도, 경주 백률사 불좌상 벽화, 경주 분황사 천부상 등도 볼거리를 선사한다.

### ▲ 사찰벽화의 원류-돈황석굴

10세기 중국에서 건조된 돈황 제61굴이 그대로 자리만 옮겨온 듯한 입체 연출을 했다. 석굴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벽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돈황 제61굴에 있는 아미타변상도, 약사변상도, 보은 변상도 등과 함께 돈황 제156굴 아미타변상도와 보은 변상도도 함께 전시된다.



돈황 제61굴 벽화 모사도.



삼국시대 서복사지에서 출토된 벽화조각.

### 기원정사 보시한 급고독장자 부처님께 허락 받고 조성 시작

는 모습을 그려라. 식당에는 음식 든 아저를 창고문에는 보배를 안수당(安水堂)에는 물병을 가진 용이 묘한 영력을 붙인 그림을, 옥실과 화실에는 <천사경(天使經)>의 법시에 의한 그림과 약간의 지옥변상(地獄變相)을, 침병당(寢病堂)에는 여래가 몸소 병을 간 호하는 상을, 대소행처(大小行處)에는 시체의 모습을, 방 안에는 마땅히 흰 뼈와 해골을 그려라”고 설명한다. 이 같은 설명은 현존 사찰벽화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인도에서부터 그려지기 시작한 벽화는 중국 돈황석굴 등을 거쳐 우리나라 삼국시대 사찰에서 발견된다.

우리나라에서 불화가 그려진 것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등에 “황룡사 벽에 소나무를 그렸다” 등으로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삼국시대의 사찰벽화는 동시대 고분벽화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사찰벽화에서 사용되는 오방색이나 연꽃 비천상 등의 문양은 현존 벽화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법용스님 저

21세기의 달마 dharma 마

21세기의 달마 dharma 마

저자: 법용스님  
번역: 신국환 | 컬러  
값 10,000원

21세기의 달마 dharma 마

달마! 그는 우리에게 타협하지 말라고 외친다. 마음속 샅된 생각들과...

왜, 사람들은 '달마대사'를 그토록 찾아 나서는가?

대비(大悲)의 달마  
달마는 깊고 그윽하다. 부처님 아래로 부처님의 법(法)을 이어받은 조사(祖師)들 중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되는 분은 달마대사이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대중에게 친근한 분이다. 부리부리하고 형형한 안경, 거친 모습. 그러나 달마대사는 자애로운 불보살의 화신이다. 달마대사의 행상이 중생의 액을 막아주고 편안과 강령(건강과 풍요)을 주는 것은, 달마대사의 숭고하고 원대한 중생구제의 서원으로부터 비롯된다.

- '21세기의 달마' 중에서 -

법용스님의 무보시 달마도 그려주기

일시: 6월 11일 ~ 6월 26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108명

장소: 울산 롯데마트 (진장점-울산공항 옆) 4층 문화센터 내

문의: 011-856-0648

출간 3주만에 2쇄 발행!!!

21세기의 달마 法護

화제의 신간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21세기의 달마 dharma 마

사은행사 안내

도서구입 독자께  
법용스님께서 정한 소비용  
금장카드 부력을 드립니다.  
(시중가 20,000원 상당)

공정도 출판 - 세븐 7350000